

119레오

계기

2016년 건국대 인액터스(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실험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에 몸담고 있던 이 대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들을 인터뷰했다.

매년 70톤에 달하는 폐방화복이 법적 내구연한으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방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매년 방화복이 폐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방관들을 구했던 웃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방화복 업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병에 걸려 죽은 아빠가 아니라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채 혈관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범석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히스토리

친구들과 함께 2016년 건국대 인액터스 119레오 프로젝트를 론칭한 후 폐방화복을 활용한 가방과 팔찌를 선보였고, 나날이 성장을 거듭해 2018년 8월 119레오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대표를 맡게 됐다.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 올해 7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을리고 구멍 난 폐방화복을 가져다 씻고 분해해서 만든 가방에 MZ 소비자가 움직였다. 산소통, 마스크 모양을 본뜬 업사이클링 백팩, 슬링백, 매신저백.. 소방호스로 만든 동전 지갑은 용기의 에너지를 전염시켰다.

7년 간 17톤의 방화복이 재생됐고, 기부금으로 암투병 중인 소방관 13명을 구했다. 별세한 분들을 따로 기억하기 위해 전시회와 토크쇼를 열었다.

"아니요. 1년에 1만 벌의 소방복이 버려져요. 내구연한 3년이 다 된 폐방화복을 일괄 세탁해서 쓰는데, 작업을 거처도 그을음과 구멍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현장의 흔적을 그대로 제품에 남기면 그건 '아트'의 영역인데, 저희가 아직 그걸 감당할 수준은 아니고요(웃음)."

네이밍

119레오(REO)로, 'REO'는 'Rescue Each Other'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의미

119레오가 '서로를 구한다'는 문장의 대명사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듯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로가 서로를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고객

119레오의 주 고객층은 소방관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소방 호스 카드 지갑과 REO926 백팩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던 소방 호스로 만든 카드 지갑은 질감이 독특하고 고리가 있어 어디든 가볍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폐방화복으로 만든 백팩은 견고하면서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소방 현장에서 실제 사용됐던 만큼 생명을 구한 흔적도 남아 있는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제작 과정

방화복을 수거해 재활센터에서 이중 세탁을 하고 나면 방화복의 주머니, 주머니, 리플렉터, 지퍼와 같은 기타 부속품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원단의 형태로 만들고, 가방 등 제품의 디자인에 맞게 원단을 자르고 이어 붙인다.

방화복은 아라미드라는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다

방화복은 아라미드 소재로 제작되는데 방염, 발수, 방검 성능을 지녀 튼튼하고, 무게도 가벼워 재활용하기 좋아요

우선 소방서로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과 소방 호스 등 소방 안전 장비를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그 후 지역 재활센터 내 세탁 작업장으로 전달해 2중 세탁을 진행하고, 임가공 작업장으로 보내 분해 과정을 거쳐 원단으로 만듭니다.

이 원단을 각 제품 생산 공장에 전달해 가방과 카드 지갑, 액세서리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지요. 보통은 무상으로 폐방화복 등을 받다 보니 제품 제작비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새 원단을 사는 것보다 폐방화복을 재가공하는 비용이 10배 정도 비싸요.

계획

앞으로 방열복 및 소방장비 중 다른 소재들로도 확장, 더욱 다양한 소방 장비들을 업사이클링 할 예정이에요. 더 나아가 현재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원단까지도 활용해 소비자분들이 더 넓은 폭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노력

대표 제품

119REO의 대표 상품을 꼽으라면 가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찌가 반응이 좋습니다. 가방의 경우 백팩과 슬링백 제품이 가장 인기있는 모델입니다.

팔찌는 카라비너가 대표 상품이에요. 최근 서지컬 스틸로 제작되어 땀이나 물이 묻어도 변색되지 않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있어요.

스토리

화재와 구조 현장을 누비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승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족들이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때 처음 만났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자주 참석했어요.

암 투병 소방관의 권리 보장'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지요. 소방관이 일하는 활동 범주가 너무 넓다보니 표본을 만들기도 어려웠거든요.

1심 패소 후 2심 재판 결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게 됐고, 승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암 투병 소방관과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소방관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119레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이 완료되면 해외로 눈을 돌려 방화복을 입지 못하는 나라에 이를 공급해주고 싶어요.

사실 새 방화복을 입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개발도상국 일부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폐방화복을 입기도 해요.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입을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우비를 입고 불을 끄러 현장에 출동했지요.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암에 걸려 죽어가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故김범석 소방관은 생전에 1살 된 아이에게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불을 끄다 죽어간 아버지로 기억되길' 원했다.

창업자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에 진학할 때 건축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공간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건축뿐 아니라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러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체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119레오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실행에 옮겼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제 좌우명은 '우공이산(愚公移山)'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 세상의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브랜드 가치

119레오는 용기를 담아내는 브랜드예요. 이러한 용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소방관이고 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2018년부터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용기요, 소방관 직업을 갖지 않고도 열정과 용기를 가진 보통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길지 않은 생애를 시간을 살았지만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년 만에 암투병 소방관 재해 인정 법안이 통과되고, 폐방화복 가방도 조금씩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후원자들과 꿈꿔왔던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세상'이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 대표는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상해 소송 승소를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한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중종 "가방에 검댕이 묻어서 왔어요!"라는 피드백이 와요. 저는 그걸 생명을 구한 흔적이라고 해요. '더러워도 그냥 써'가 아니라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깨끗한 것과 흔적이 남은 것. 어느 쪽이든 그 자체로 용기의 빈티지하고 환경의 무늬잖아요."

119레오 역시 소방 안전 장비 업사이클링을 통해 안전에 기여한 제품들이 다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2016년 폐방화복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소방 호스, 2020년에는 기동복, 올해에는 리사이클링 원단까지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폐방열복도 업사이클링할 예정입니다.

119레오는 영업이익의 50%를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이 원할 경우 제품 구매때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는 포인트만큼 119레오가 기부금을 얻는 '1:1방식'을 준비 중이다.

"효율과 진정성이요. 특히 진정성은 더 세련된 정련을 위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고민을 나눠야 해요. 실제로 사업 초기에 방화복을 100% 업사이클링으로 진행했다가 싸늘한 시장 반응에 상처받았는데, 돌아보니 그때 재가 오만했더라고요."

'설마 이런 진정성을 외면한다고?' 오버하면서... 진실을 기반으로 더 예쁘게, 더 실용적으로, 시대 흐름에 핏을 맞춰 전달해야 했어요."